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05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6.16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교육전도사 : 김상진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시 교독 <시편139편> 다같이

(인도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성도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인도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성도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인도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성도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인도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성도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도자) 하나님이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같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과 듣기 <열왕기하 11:1-16> **다같이**

말씀 묵상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목상 기도 **다같이**

응답이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 F C Dm Gm C₃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계시도-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음답과 추복

✚ 감사 찬양..... <주의 은혜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역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11-3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가 아달라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겨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육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라는 그가 살아 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4 칠 년째 되던 해에, 여호아다가 사람을 보내 경호대 지휘관과 왕궁 호위대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세바를 만났다. 여호아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하게 한 뒤, 어린 왕자를 보여주었다.

5-8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에 당번이어서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안식일에 비번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호위병 교대 시간에 무장한 채로 합세하여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9-11 군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아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아다에게로 왔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12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에게 기름을 붓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13-14 아달라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함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무리에게로 갔다. 그녀는 왕이 보좌 옆에서 양옆에 군지휘관과 전령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아달라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15-16 제사장 여호아다가 군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였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왕하11:1-16] 1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2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3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와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4 일곱째 해에 여호아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와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5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삼분의 일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6 삼분의 일은 수르 문에 있고 삼분의 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7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와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8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9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아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아다에게 나아오매 10 제사장이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12 여호아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3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14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15 제사장 여호아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와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묵상노트



감사찬양

주의 은혜라

blog.naver.com/suneun0691

Words & Music by 손경민

FM7 Em7 Dm7 C/E

5 FM7 C/E Dm7 F/G G

10 C Em F G 내 평
생 살 아 온 길 뒤 돌아 보 니 짧 은

14 C Em F G7 C C/E
내 인 생 길 오 직 주 의 은 혜 라 주 의

18 FM7 C/E FM7 C/E
은 혜 라 주 의 은 혜 라 내 평 생 살 아 온 길 주 의

22 FM7 E/G# Am7 Em7 FM7 G
은 혜 라 주 의 은 혜 라 다 함 이 없 는 사 랑

27 G7 C Em F G
달 려 갈 길 모 두 마 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 는

32 C Em F G7 C
공 로 전 혀 없 도 다 오 직 주 의 은 혜 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3:00
사모공동체 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성경과외	목요일 오전 10:3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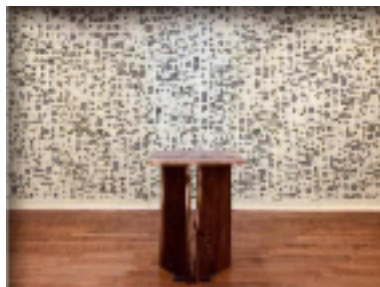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통독 진행상황

갯피플 성경통독 앱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성경통독 진행 본문 알려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37일차> [역대상17-23장](#)입니다. 이번주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받으며 파이팅하세요.

성경통독 여름수련회

연제 - 7.27(토)~30(화) [27(오후3시)-28(하루종일)/ 29-30(저녁7시-11시)]

방식 - 성경통독 수련회 | 장소 - 길목교회 본당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접수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일정 - 2025년 2월 또는 3월 / 비용 - 홈페이지 참조 / 가이드 - 이길주 목사

신청 - 길목교회 홈페이지

길목교회 창립4주년

6월30일은 길목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양상블 토브와 함께 예배합니다. 길목교회로 함께 하게 된 뜻을 고민하며 감사와 축제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점심식사 섬김

6월30일 - 권종신, 이길주 목사 / 7월14일 - 박사무엘, 전정민 전도사 / 8월4일 - 조성권 청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함께 나누어주세요 ^^)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청년성경과외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금요일 사모공동체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

- 참여문의: 이메일 iam@theway.news